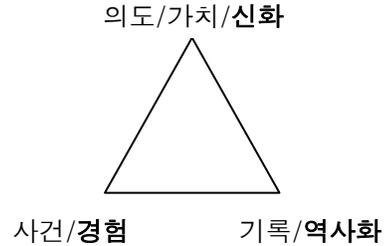


서론: “큰 지진이 일어나며...”

- Epiphany => 신의 출현, 현현(顯現)/일종의 神話, 뜻=>신학하기
 1. 형식=> ①피조물의 반응 (두려움, 놀람=>지진; e.g., 마 1:3-4); ②“두려워 말라...” (μη φοβοῦ, μη φοβεῖσθε)
 2. 구원과 심판=> 동전의 양면. 처형당한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, 그를 처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

- 기록(성서)은 신화(뜻)를 역사화한 것.
 1. 고로,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하면, 자칫 뜻이 표현에 묻힐 염려가 있다.
 2. 기록을 통해 신화/뜻/의미—곧, 구원과 심판—를 읽을 수 있어야
 3. Epiphany 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?



A. 먼저 갈릴리로 가라

1. 먼저/앞서 가다 (προάγω; 28:7=>26:32)
 - 공간적 의미: 길(道) 인도자
 - 시간적 의미: 선생(先生) => 앞서 사심. 본을 보임.
2. 직선적(linear) 삶이라기 보다 순환적(cyclical) 삶
 - 내 삶 자체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삶이지만, 공동체 삶(하느님 나라 운동)에서 보면 지속적인 삶=> 우리도 앞서 산 자(先生)의 삶을 본받아 산다.
 -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“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”(마 28:7=>17:9)이다. Q. 누가 사나?

B. 부활, 그 너머에

1.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나?
 - 막 16:8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함.
 - 마 28:8 알리려고 뛰어감 (결과는?) //눅 24:9 “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함” => 막 16:9ff
2. 성서 다시 쓰기: 내가 만난 예수
 - 언제=> 예수를 찾을 때 (마 28:5 “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”)
 - “예수가 그들을 만나다” => 이를 다시 표현하면?

C. 의심하다(διστάζω)—그 의미 (마 14:31; 28:17)

1. 어원 생각해 보기
 - 현대히브리신약: מִשְׁחָחוּ עַל־שְׂתֵי סַעֲפִים (그들 중 어떤 이들은 두 가지[branch]/의견 사이를 넘나들었더라=> 두 개의 의견/가치관 사이에서 안절부절
 - עַד־מָתִי אַתֶּם פֹּסְחִים עַל־שְׂתֵי הַסַּעֲפִים (왕상 18:21) => ^{KRV} 1 Kings 18: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
 - 다시 읽기, “의심하다”=> 두 가지 믿음/가치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침.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실생활과의 차이, 불일치 (필요/욕심에 따라, 가치관/복음을 바꿈)
2. 하늘과 땅의 권세 이양 (마 28:18-20) => 새로운 세상의 도래 (cf. 마 4:8-9//눅 4:5-6). 마귀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가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다면, 현 지배체제/이데올로기/복음/가치관의 멸망을 암시.
3. Open-ended. 소위 말하는 Great-Commission 은 제자들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생활하는가를 묻는다.

생각해 보기

1. 부활, 그 너머에 누가 있을까? 왜?
2. “갈릴리로 가라. 거기서 나를 보리라”(마 28:10)의 의미는?